

김제동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김민 소장의
당당평평

방송인 김제동씨의 KBS출연료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KBS1 시사프로 '오늘밤 김제동'의 출연료가 회당 350만원, 주 4회 방송이면 주당 1400만원, 월 5600만원 인 셈이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진행자에게 지나친 고액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김씨에게 고액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국민의 피와 땀인 수신료가 낭비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KBS는 올해8월까지 영업이익이 441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경영 위기 상황에서 특정 출연자에게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수준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예산낭비다. 또한 '오늘밤 김제동'의 전체 시청률은 2% 안팎이고, 20~40대 비교적 젊은 층은 시청률은 1%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필자는 이런 팩트가 전적으로 KBS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정치권과 관련이 되어있고, 김제동이라는 사람의 정체성 등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첫째, 김제동씨는 방송인인가 정치인인가 폴리테이너(politainer)인가. 폴리테이너라는 표현은 김씨에게는 극히 고급진 표

현이다. 그럴만한 격이 절대 느껴지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김씨는 권력에 빌붙는 전형적인 방송인이다. 진보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선동정치

정치인도 아닌 인지도 있는 방송인이 대신 해주니 진보정권에게 김씨는 참 좋은 사람일 것이다.

셋째, 연기자도 아니고 가수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닌 어정쩡한 포지션에 강연 등을 통해 대중을 선동하는 것을 보면 필자는 솔직히 역겹기까지 하다. 그의 모든 행보는 척에서 척으로 일관한다는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은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이것이 필자의 솔직한 생각과 느낌이다.

필자는 정치를 전공하고, 정치권에서 종사했고, 현재도 정치와 관련된 일들만 해오면서 김제동씨의 행보를 보면 때로는 이미 수위를 넘었다는 염려와 동시에 극단적인 거부감이 들곤 한다.

방송인으로서도 컨텐츠가 불분명하니 특정 정치권을 옹호하고 충성하는 일명 '뺨끼' 그 이상 이하로도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인 정치논리와 이론도 없고 무조건 선동만 한다. 서민들 운운하며 그 정도 출연료를 받아 챙길 때 그 분은 분명 일말의 거리감과 죄책감이 있어야만 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표리부동한 컨셉으로 먹고 살려면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노력은 가상하다.

본인이 정치할 역량은 없고, 전업 방송으로 성공하기에는 정확한 포지션과 컨텐츠

가 애매하고, 입은 살아있으니 그가 택한 전략은 지금의 그런 전략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일 것이고 그것을 아주 잘 판단했다는 생각은 든다.

선동은 하는데 실제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 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보주의자이다. 진보세력의 가장 큰 문제가 표리부동 아닌가. 서민과 민주주의를 그토록 외치면서 실제로는 계급투쟁에만 혈안이 되어 권력을 얻게 되면 피해의식으로 뽕뽕 뭉쳐 누구보다 더 부패하고 파렴치한 것. 한마디로 김제동씨는 대한민국 진보세력의 표상이고 민낯인 셈이다.

적자인 공영방송이 비상식적인 출연료를 낭비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어디부터 변화해야 할지 난감하다. 분명히 말하는데 필자는 과거 진보대통령과 보수 대통령이 집권 시 가장 최측근에서 각각을 지켜보며 일해왔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세상의 이슈와 실제 속내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언행이 불일치하는 김제동씨 같은 사람이야말로 그가 떠들어대는 대한민국의 적폐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선동하면서 그 국민들의 혈세로 제공되는 수신료를 가지고 그런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인생이라면 더 이상 비난하고 욕할 가치도 없지 않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데일리포커스 정치연구소장)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대상화

아름 속에서 하늘이
내밀어 준 손
힘든 순간들마다 큰
힘이 되는...

(고홍근 작)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印尼 'G20재무장관 회의' 등 참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2018 IMF·WBG 합동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7일 한에 따르면 이 총재는 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9일 출국해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 국제금융제체 강화방안, 금융안정 과제 등의 안건에 관해 회원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와 논의한 뒤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국 중앙은행총재 및 국제금융계 인사들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의 양자 면담을 통해 상호 금융협력방안,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상황 등에 관해 의견도 나눌 계획이다.

(김희주 기자 hj89@)

오늘의 운세

10월 8일 (음 8월 29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언행에 특히 주의. 60년생 김칫국부터 마시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 72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라. 84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려고 하면 큰 원망을 듣게 된다.

소 49년생 상대방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착각한다. 61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73년생 죽순은 비 온 뒤에 더 잘 자라니 역경을 잘 견디자. 85년생 먹을 복이 많은 날.

호랑이 50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방황하는 날. 62년생 성공이 지척이니 하던 대로 계속 전진. 74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마침내 온다. 86년생 보석은 마찰 없이 빛날 수 없고 인간은 시련 없이 성공할 수 없다.

토끼 51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마음을 굳건히. 63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하는 일이 순조롭다. 75년생 자식이 보물이나 아파도 보듬어라. 87년생 얼룩진 옷은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 반드시 세탁.

뱀 52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해야 하나 고민스럽다. 64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 76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88년생 하나를 투자해도 열 개로 돌아오는 날.

말 53년생 가족이라도 공과 사는 분명히 따져야 한다. 65년생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한발 물러서서 생각. 77년생 밤을 이겨내는 자만이 새벽을 맞을 수 있다. 89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별로 없다.

말 54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가 내리는 격이니 조심. 66년생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니 희망을 버리지 말자. 78년생 쥐띠 동료의 조언으로 어려운 일을 극복. 90년생 내키지 않은 일을 맡아 마음이 불편.

양 55년생 비상금을 풀어야 할 때이다. 67년생 결혼은 돌이 했으나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여행이다. 79년생 올바른 처신이 구설수를 예방한다. 91년생 기회가 주어져도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으니 주의.

원숭이 56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생긴다. 68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야 하는 날이다. 80년생 1%만 중중해줘도 99%의 마음을 얻는다. 92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으니 부단한 노력이 필요.

닭 57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니 의외의 복병이 있다. 69년생 배우자 외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81년생 멀리서 오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쁘다. 93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개 58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 70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 82년생 자신을 이기지 않고서는 발전이 없다. 94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사용하든 된다.

돼지 59년생 지금 이대로의 나를 사랑하자. 71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해라. 83년생 고집을 세우면 부모도 외면하는 법. 95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되니 바른 사고를 지녀라.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3	9	5	6		
				1				
9			2		4			8
2	6		7		5			4
8	4		9		2		7	6
1	7		4		2			3
5			6		7			1
				8				
		1	5	3	9	8		

					5	9		
2					8		4	7
				7		6		
	2	3		5	9			4
	1		6		7		8	
4			2	3		7	5	
		2		9				
1	9		5					2
		4	3					

스도쿠 정답								
4	9	8	6	5	1	2	7	3
5	2	1	7	8	9	6	4	3
1	7	6	2	3	9	8	5	4
6	2	9	7	8	5	1	3	4
9	4	1	5	6	8	7	2	3
7	8	5	1	9	6	2	3	4
8	1	7	9	2	5	1	6	3
6	5	7	8	1	2	9	4	3
3	1	9	5	6	4	7	8	2
9	6	8	2	1	7	5	4	3
2	4	1	7	8	9	6	5	3
5	1	7	9	6	2	8	3	4
6	5	2	1	8	7	9	4	3
8	9	4	6	5	8	1	2	7
1	2	9	8	7	6	5	3	4
3	7	5	8	9	6	1	4	2
8	1	6	5	2	1	7	9	3

문제 제공= 보스



중기중앙회-안성경찰서, 외국인근로자 보호 맞손
경기 안성경찰서와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 안성에 있는 중기중앙회 안성연수원에서 취업교육을 받는 연평균 2만5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한 한국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지속적인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기중앙회 김태환 취업교육팀장(왼쪽)과 윤치원 안성경찰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인사

◆예금보험공사 ◇전보 △정리총괄부장 장진영 △금융정보부장 이병재 △채권관리부장 심재만 △혁신경영실장(내정) 김홍태 △경상남도 소방본부장 김성곤 △소방청 대변인 조선호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부음

▲이윤종씨 별세, 이규환(청주시청 환경

정책과 환경정책팀장)씨 부친상=5일 오후 11시 30분, 청주하나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 30분. 043-270-8400
▲박쌍용 씨 별세, 박철우(성주그룹 MC M 수석본부장)씨 부친상=6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 02-2258-5940
▲김종열씨 별세, 광수(한국일본정치부 기자)씨 부친상=7일 오전, 강동경희대학 교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9일, 02-440-8800.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1721-9851, 9826 / 021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5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49호